



월간정보다이제스트

극동 경제 발전

2019 년9 월

2019 년 동방경제포럼 이후 푸틴 대통령은 일련의 명령을 승인했다.

4 만 8 천 명이 극동의 거리 전시회를 찾았다.

즈베즈다 조선소가 39 척의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.



주요 태

동방경제포럼 소식

2019 년9 월23 일 «Gazeta.ru»

2019 동방경제포럼 이후 푸틴 대통령이 일련의 명령을 승인했다.

러시아연방 대통령은 극동지역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및 친환경 관광 발전을 위한 투자자 유치 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. 이외에도 대통령은 극동지역 신혼 부부를 위한 2% 저리 부동산 담보 대출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을 위한 법안 수정을 정부에 지시했다. 더불어 교육, 보건,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, 지방 항공운송 발전 관련 일부 명령도 하달했다.

<https://www.kp.ru/daily/27026/4090328>

2019 년9 월18 일 «로스스카야가제타»

연해주는 32 건의 투자사업 추진 합의를 체결했다.

이번에 체결된 합의서에는 건설 사업 2 개의 화력발전소 현대화 사업 블라디보스토크 환상도로 건설 사업 등을 포함 대형 인프라 사업들이 들어있다

연해주 지역 항공 운송 및 의료용 응급 헬기 생산을 위해 '러시아 헬미콥터

홀딩업체와는 '프로그레스 항공기 제조업체 현대화에 대한 합의서도 체결했다.

<https://rg.ru/2019/09/18/reg-dfo/primorskij-kraj-zakliuchil-32-soglasheniia-v-ramkah-vef.html>

2019 년9 월9 일 «코스모스키야 프라우다»

4 만8 천 명이 극동의 거리 전시회를 관람했다

극동의 거리 전시회가 일반인에게 개방된 마지막 날 이틀 동안 4 만여 명의 관객이 전시회를 찾았다. 관람객 중에는 다자녀 가족, 연금 생활자, 퇴역장병, 청소년 단체 회원 등 3 천여 명의 사회보호 대상자들도 있었다. 동방경제포럼 계기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극동지역의 독특한 특징, 경제 성장 및 관광 발전 잠재력, 다양한 문화 전통이 소개되었다.

<https://www.kp.ru/daily/27026/4090328>

극동 국가 정책

2019 년9 월26 일 «인테르팍스 통신»

일부 극동지역이 공공사업을 위해 10 억루블의 추가 예산을 받게 된다

2019 년-2020 년 동안 극동지역 3 개 경제발전 중점 지역이 공공 사업 및 인프라 엔지니어링 사업 발전을 위해 연방 정부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. 지원 대상 지역은 부랴티아 공화국, 자바이칼 지방, 아무르 주 등이다. 특히 이번 연방 정부 예산은 의료시설, 문화시설, 체육 시설 등에 대한 현대화와 첨단 의료 장비 구입에 쓰여질 예정이다.

<http://www.interfax-russia.ru/FarEast/main.asp?id=1068226>

2019 년9 월18 일 «인테르팍스 통신»

중국에 극동투자수출청 지부가 들어선다

연례 라 중 총리급 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. 극동투자수출청 지부는 중국 기업들에게 극동지역 투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, 통상 경제 협력 및 투자 협력 발전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.

<http://www.interfax-russia.ru/FarEast/special.asp?sec=1749&id=1065700>

2019 년9 월17 일 «타스통신»

2020 년 초에 극동벤처기금이 조성된다

이번 동방경제포럼 계기 열린 극동 기업 관계자들과의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극동발전기금 자금을 기반으로 극동벤처기금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. 초기 단계에는 15 억 루블이 지원된다. 극동벤처기금은 투자 종자 자본 또는 유망 스타트업 사업 추진을 위한 포상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.

<https://tass.ru/ekonomika/6892718>

극동경제

2019 년9 월17 일 «타스통신»

중국국영발전은행이 나훗카 메탄을 생산 시설 건설을 위해 17 억 달러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

중국국영발전은행과 대외경제은행은 천연가스 처리 공장 건설을 위한 파이낸싱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협의를 체결했다. 관련 합의서는 연례 라 중 총리급 회담에서 체결되었다.

2019 년9 월16 일 «타스통신»

극동발전공사는 지난5 년간 총3 조2 천억 루블에 달하는 합의를 체결했다.

극동발전공사는 극동투자유치를 위한 특별지역에 입주한 기업들과 1,891 건의 합의를 체결했다고 키누코예프 사장이 밝혔다. 현재 극동 관구에는 20 개의 선도가발구역과 5 개 지역에 걸쳐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운영 중에 있다.

<https://tass.ru/ekonomika/6890347>

신규 극동 발전 메커니즘, 성공의 역사

2019 년9 월30 일 «로스스카야가제타»

올 10 월에 하바롭스크 공항 국내선 신규 터미널이 가동된다

신규 터미널 건설 사업은 2018 년 10 월에 시작되었다. 제 5 차 동방경제포럼 계기 푸틴 대통령이 임명한 가운데 신규 터미널 개막행사가 열렸다. 총 투자액은 49 억 루블이다. 신규 터미널의 연간 여객처리 능력은 3 백만 명이다. 이번 터미널은 하바롭스크 선도가발구역 조성 덕분에 가능했다.

<https://rg.ru/2019/09/30/reg-dfo/terminal-vnutrennih-avialinij-aeroporta-habarovska-zarabotaet-v-oktiabre.html>

2019 년9 월10 일 «인테르팍스 통신»

즈베즈다 조선소가 39 척의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.

로스네프티 국영기업을 위시한 투자 컨소시엄이 연해주에 즈베즈다 조선소를 건설 중에 있다. 이고르 세친 로스네프티 회장은 이 중에서 28 척의 선박을 로스네프티가 주문했다고 밝혔다. 즈베즈다 조선소에서는 15 척의 북극 LNG-2 사업용 LNG 운송선도 건조될 것으로 전망된다. 즈베즈다 조선소에서는 대형 선박, 쇄빙 선박 및 기타 특수 선박이 건조될 예정이다.

<http://www.interfax-russia.ru/FarEast/main.asp?id=1063443>